

안건2. 민중총궐기 조직 결의 건

주문>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조합원들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조직하기 위한 결의를 담아 결의문을 채택해 주십시오.

- 결 의 문 -

청와대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시작되고 있다. 봉건사회의 제왕처럼 품 잡던 대통령이 숨은 세력의 인형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법을 내세우던 대통령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하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삼천리금수강산에 솟구치고 있다.

우리는 안다. 대통령이 밀실세력의 인형에 불과했고 그 인형놀이는 끝났다. 진짜 인형놀이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보수집단은 끝나버린 인형놀이를 대신할 또 다른 인형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기업권력은 미르재단에 수백억을 빼앗긴 인형놀이의 피해자 행세를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은 누구의 주문이었는가. 공공운수노동자들이 맞서 싸우는 성과해고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용자를 위한 것이다. 재벌의 용돈을 받아 움직인 밀실세력과 새누리당 등 자본의 인형들이 노동시민을 공격했다. 기업권력은 인형놀이의 피해자가 아니라 인형을 조종한 진짜 몸통이요 뿌리다.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또 다시 시작될 인형놀이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노동시민의 권리를 억압해온 자본가의 인형을 넘어서 전진해 나갈 것이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향해 현장 동료들을 조직할 것이다.

인형놀이를 하는 집단들이 만든 헬조선을 넘어 노동시민들이 대안세력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 투쟁을 향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 딛기 위해 오늘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첫째, 금속노조경기지부 대의원으로서 11월 12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최대한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둘째,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헬조선의 인형놀이를 걷어치우기 위한 노동시민들의 투쟁, 청년학생들과 다양한 시민들이 행동하는 곳에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셋째, 경제발전을 이룩해온 노동자, 민주화를 일궈온 노동자계급, 고용불안에 맞서온 노동시민으로서 우리는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민주노총의 모든 조합원, 헬조선을 지탱해온 모든 노동시민과 함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16년 10월 31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의원 일동

금속노조경기지부 3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6.10.31(월) 15시 상록시민홀